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알림

- 오늘은 교황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7월 8일(금) 병자영성체(봉성체) 있습니다.
- 7월호부터 매일 미사 책 판매가격이 소(소) 1,500원, 대(대)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M.E.	7/3(일), 교중미사 후	6교실
위령봉사회	7/3(일), 12시	강당
1Cu.	7/10(일), 12시	강당
2Cu.	7/10(일), 13시30분	강당
3Cu.	7/10(일), 12시	식당
임원 모임	7/13(수), 20시	식당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	두 번째 목요일, 19시 40분	1교실
성령기도회	매주 월요일, 19시 40분	1교실

교육 / 강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시 : 7월 4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베타니아 경로당 이용 안내

- 이용 시간 : 주 7일(월~일), 10시~18시
- 점심 식사는 무료 제공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1시 베타니아 경로당 월례 미사 봉헌합니다.

제 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사진 공모

- 응모 자격 : 본당 교적 신자 누구나
- 응모 주제 : 조부모와 손자녀가 꼭 함께한 행복한 모습
- 작품 규격 : 스마트폰/디지털카메라/흑백/컬러 관계없음
(용량이 클수록 좋으며 원본 파일로 신청)
- 출품 수 : 1인 최대 10점 이내
- 접수 기간 : 2022년 7월 1일(금)~7월 31일(일)
- 접수처 : 본당 사무실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6/1~6/30)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15구역1반	황정애	소화데레사	서울/성산동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7/1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월 시작 예정	청소	10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6월 22일 ~ 6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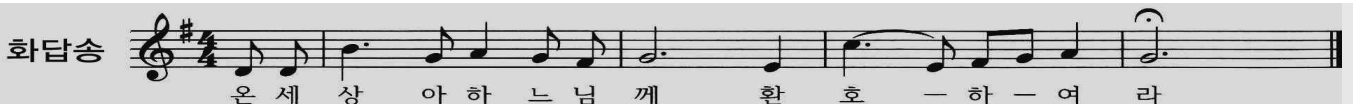
• 교 무 금		6,428,000원	
• 주일헌금		4,793,000원	
• 오라토리오 2차 헌금		1,454,000원	
• 감사헌금	이형순 5만원	신종구 5만원	강석희10만원
	윤병남10만원	김미혜 5만원	이승문 5만원
	김○○10만원	정영자 1만원	김정애10만원
	2/3지역 9만8천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7/3	손진희	조홍환	최상림	최승일	손정주
7/10	구민서	오성환	김영균	윤상기	민옥경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7/3	박용환	이화봉	최석준	박형순	이운영
7/10	박형순	이운영	최창열	황태영	장인홍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정치적 사랑

180. 모든 사람을 우리 형제자매로 인식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우애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은 그저 이상향이 아닙니다. 그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길을 찾는 능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은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모든 이를 위한 정의와 형제애를 추구하는 사회적 여정의 시작에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할 때에 “가장 드넓은 애덕의 분야, 이른바 정치적 애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정치 질서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이 질서의 정신은 사회적 애덕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매우 숭고한 소명이고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인 정치를 새삼 소중히 여기라고 호소합니다.

181. 교회의 사회 교리에서 영감을 받은 모든 노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의 종합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서로를 돌보는 작은 몸짓으로 넘치는 사랑은 또한 사회적 정치적 사랑이 되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차원의 거시적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182. 이러한 정치적 애덕은 모든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사회적 인식에서 생겨납니다. “‘사회의 애덕으로 우리는 공동선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개인이나 민간뿐 아니라 그들을 결합시켜주는 사회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선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한 민중의 일원이 될 때 온전한 인격체가 됩니다. 동시에 각 인격체의 개성이 존중되지 않고서는 민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중’과 ‘인격체’의 의미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격체를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권력자들이 손쉽게 지배하는 고립된 개인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좋은 정치는 세계화를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세계화의 파괴적 결과를 피하고자 사회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